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휠체어 버스 첫 운행

복권기금과 함께 행복한 동행 '새빛콜 여행스케치' 지원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새빛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인승 휠체어 전용버스를 도입하고, 2일 '새빛콜 여행스케치' 차량 지원으로 신안군 임자면 툼림축제로 향하는 첫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에 도입된 다인승 휠체어 전용버스는 휠체어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차량으로, 최대 5명의 휠체어(전동 및 수동휠체어) 이용자와 보호자(6명)가 함께 탑승할 수 있다.

기존 개별 이동지원 차량보다 수송력이 향상되어 이용 대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이번 도입을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인승 차량을 활용한 단체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문화체험, 병원 방문, 행사 참석

등 다양한 이동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했던 이용인은 "이번 다인승 휠체어 전용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주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현택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은 "다인승 휠체어 전용버스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향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편리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새빛콜'은 교통약자 이동권의 증진을 위해 시비 및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인승 휠체어 전용버스를 도입하고, 2일 '새빛콜 여행스케치' 차량 지원으로 신안군 임자면 툼림축제로 향하는 첫 운행을 시작했다.

PEOPLE

2025년 4월 4일 금요일



구북구 화순군수

인구문제 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

화순군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기획된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구북구 군수가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문제 인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돼 전국 각지의 다양한 지자체와 기관의 참여로 확산하고 있다.

구북구 군수는 김한중 장성군수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구 군수는 다음 참여자로 우호 교류 도시인 경북 고령군의 이남철 군수와 자매결연 도시인 경남 거창군의 구인모 군수를 지목했다.

군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일 임대주택 지원사업, 결혼장려금 지급, 출생기분수당 지급,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구북구 군수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서구는 3일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각계에서 모은 성금 40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광양상공회의소 최근 광양시청 만남실에서 광양시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 촉진을 위해 상공인 5개 단체에 지원금 25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 서구, 산불 피해 지역에 나눔·연대 실천

각계각층 모은 성금 4000만원 전달

광주 서구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3일 서구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각계에서 모은 성금 40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민관협력 복지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고액 후원자 그룹인 서구아너스에서 1430만원, 서구주민자치회에서 540만원, 서광회에서 300만원, 서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서구세마을회에서 각 200만원, 서광동 보장협의체에서 100만원의 성금을 내놓았다.

서구청 공직자들도 지역을 넘어선 나눔과 연대의 실천에 뜻을 모아 123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달 31일 신세계이마트, 몰마루, 와이마트, 다르다김밥 등 지역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생수와 커피라면,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과 양동시장 상인들이 '5·18추모밥' 500인분을 만들어 경북 영덕군에 보내기도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이 산불 피해 지역민을 돕기 위해 뜻을 모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것이 바로 착한도시 서구민들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고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기를 되찾아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r1404@gwangnam.co.kr

광양상의, 지역 상공인 5개 단체에 2500만원 전달

민생 안정·소비 진작 촉진 기대

광양상공회의소 최근 광양시청 만남실에서 광양시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 촉진을 위해 상공인 5개 단체에 지원금 25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광영상공인연합회, 광양상공인회, 동광양상공인회, 광양만상공인회와 광양경제활성화운동본부 등 5개 단체에 각각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광양 소비촉진 캠페인과 관광객 유치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홍보투어, 지역특산품 홍보 캠페인, 소비촉진 참여 현수막 게시, 소상공인 매장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소비진작 촉진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인화 시장은 "광양상공회의소에서 소비심리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광양시 민생안정 소비촉진 협의체와 함께 소비진작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광일 회장은 "불안한 경제상황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우리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진작 촉진을 위해 협력해 주신 상공인 및 경제단체에 감사를 드리며 사업비 지원을 통해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양=김주진 기자 kjkjin@gwangnam.co.kr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수질 분야 역량 강화 교육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2일 동부지원 회의실에서 전남도와 동부권 7개 시군 환경오염도 검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질 분야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교육은 수질업무 담당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수, 하수 등 수질 분야의 올바른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 숙지를 통해 시료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을 중심으로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현장 수질측정기 사용 방법 등 환경오염도 검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실무 교육 등이 이뤄졌다.

박찬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장은 "교육을 통해 수질 분야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청정전남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북광주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

60명에 5540만원 지원

북광주농협은 최근 본점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총 55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조합원 자녀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예정자 60명을 대상으로 지원됐다. 북광주농협은 미래 농업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후계 인재 육성을 목표로 매년 장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더욱 노력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북광주농협은 최근 본점에서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총 55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문센터. 문의 062-374-2818.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상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봉사 함께 할 광주VIP라이온스클럽 회원=심신 건강한 남·여 환영. 문의(회장) 010-3223-4311. (총무) 010-3365-0065.

은세 (음력 3월 7일)

48년생 최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60년생 그동안 공들인 일이 성사된다
72년생 과욕은 훗날의 아픔을 예고
84년생 타인과의 말 다툼을 조심
96년생 친구·동료를 비방하지 말라
51년생 작은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63년생 참으로 난감한 일이 생긴다
75년생 생각의 변화가 생길 때
87년생 실수를 챙겨야 할 때
99년생 이제야 진심을 알아주는 때
54년생 진행 중이던 일이 막히 고민
66년생 김사로 인해서 탄력이 붙겠다
78년생 생기발랄한 판도가 조성된다
90년생 술과 밥이 생기는 좋은 시기
57년생 다름이 관재수로 발전한다
69년생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
81년생 유익한 일을 함의 볼 수도 있다
93년생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49년생 손재운이 따르니 돈 관리 잘하라
61년생 의외의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73년생 희망의 무지개가 드리워져 있다
85년생 금전적인 고통이 따른다
97년생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52년생 아예 하지 않음만 못하다
64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76년생 진중하게 진행해 나가자
88년생 급한 마음이 일을 그르친다
55년생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67년생 말을 아끼면 복이 될 것
79년생 참된 가치를 깨달아야 할 때
91년생 더 넓은 곳을 쳐다 보라
58년생 전문가와 상담해 보라
70년생 가족 도움으로 구제 될 것
82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아라
94년생 모두 원만하지 못할 운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재물이 다들들 조심하라
62년생 승산이 있으니 진행하라
74년생 주러 갔다가 받고 오는 양태
86년생 뒷일은 생각하지 말고 밀어 부치라
98년생 이성 관계 무조건 좋다
53년생 경사가 연발할 운
65년생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77년생 내버려둬도 다 알려지게 되어 있다
89년생 순응함이 유리하다
56년생 외출을 삼가한다면 면액 하겠다
68년생 적당한 운동과 휴식으로 충전하라
80년생 시험에 임하면 이길 승산이 있다
92년생 지만심은 금물
59년생 말 조심하면 일이 해결될 것
71년생 자녀의 말썽으로 힘든 운
83년생 적극적인 활동이 아쉽다
95년생 못지 않던 운을 받든 운